1. 다음은 어느 나라의 정부 관계자가 작성한 가상 편지를 시기별로 나열한 것이다. 각 시기별로 일어난   
   사건이 옳게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1. 다음은 가상 여행기이다.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음은 이슬람력에 대한 설명이다. 선지 ㄱ~ㅁ 중 옳은 것의 개수는? (단, ㅁ 선지는 영국에 대한   
   서술이다)

  

B=0.97\*C+A

1. 다음은 역사 강의 내용 중 일부이다. 전쟁의 종전과 내전의 종결 사이 시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의 개수는?



1. (전략) …그리하여 미국의 전쟁부 장관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는 비밀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하게 됩니다. 이 협정의 배경에는 미국이 벌인 전쟁의 결과로 얻은 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푸에르토리코, 괌 등의 지배권과 쿠바에 대한 영향력 행사 보장 등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2000만 달러에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해군력은 영국 등 강대국에 뒤져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독자적인 방위를 보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일본과, 그 배후에 있는 영국의 필리핀 불침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2. (전략) …프랑코는 공화파의 이러한 실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테루엘에서의 뼈아픈 실책은 프랑코로 하여금 아라곤을 점령하고 지중해에 도달하도록 하였고, 이에 카탈루냐의 공화파 세력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공화파는 이를 구원하기 위해 최후의 에브로 공세를 감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카탈루냐를 어렵지 않게 항복시킨 프랑코는 마침내 마드리드에 입성하여 국가주의파의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내전은 종결되었고, 스페인은 프랑코의 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공화파의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저항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3. 아기날도가 필리핀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4.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였다.
5. 독일에 의한 라인란트 재무장이 이뤄졌다.
6. 러일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했다.
7.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판매하다 – 아이티 반란 진압 실패로 인한 아메리카 패권 포기?
8. 옴두르만 전투에서 마흐디 군 궤멸 – 마흐디 신정국가의 종식
9. 이탈리아 왕국, 교황령 점령 –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을 틈탄 어부지리
10. 프로이센왕 빌헬름 1세, 거울의 방에서 독일 황제 대관 – 프랑스의 굴욕, 파리 코뮌 문제는 어떻게?
11. 다음은 두 가상 신문기사이다. (가)와 (나) 기사의 발행일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신문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의 개수는? (단, 모든 신문기사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에 작성된다고 가정한다.)



1. 검은 나폴레옹, 독립을 쟁취하다.  
   어제 검은 나폴레옹과 장 자크 드살린 등이 이끄는 생도맹그의 노예 반란군이 정식으로 독립하였다. 이곳의 흑인 노예들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백인 지주를 처형하고 라틴 아메리카에 흑인 노예들의 자유국을 세웠다. 그들은 나라 이름을 아이티 공화국으로 정하고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으며, 미국에 이어 아메리카 대륙의 두 번째 독립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 검은 나폴레옹의 후예들, 영국을 격퇴하다.  
   어제 검은 나폴레옹의 후예들이 이산들와나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대패의 굴욕을 안겨줬다. 영국은 남아프리카 식민지의 통합을 위해 남아프리카 연방을 구상하였으나, 줄루 왕국의 왕이자 50여년 전 사망한 전설적인 아프리카의 검은 나폴레옹의 후예인 케취와요 왕은 이 구상을 거부했다. 남아프리카 연방 구상의 핵심적인 지역 중 하나인 나탈과 트란스발 지역의 줄루 왕국은 대영 제국에게 있어서는 남아프리카 식민지 관리의 걸림돌이었고, 이에 줄루족과 전쟁을 벌였으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유럽 열강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대영 제국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3. 다음은 두 연설의 일부이다. 두 연설과 그 연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각각 올바르게 연결한 것의 개수는? (단, 사람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동시대에 이뤄진 모든 연설을 들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1. 여러분은 기쁨을 만끽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승리의 날입니다. 어제 새벽 2시 41분에, 아이젠하워 장군의 군 지휘소에서 독일 최고사령부 지휘관인 조들 장군과 나치 독일국의 최고 통치자인 도니츠가 연합군 최고사령부, 그리고 동시에 소련 군 최고사령부에게 독일 육, 해, 공군이 유럽 전역에서 무조건 항복함을 명시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는 오늘 자정으로부터 1분이 지난 시점에서 해제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살상 중지를 위한 사격 중지 명령은 어제부터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대독일 전쟁은 이제 종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후략)
2.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6·25 사변(발발) 제3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 길을 찾겠다는 계획을 한 번 더 결정하자는 것이다. 3년 전 오늘에 이북괴뢰군이 탱크와 중포를 가지고 이남을 침범해 들어올 적에 우리는 군기도 없었고, 또 우방들의 원조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애국충심으로 우리 반도를 가만히 앉아서 남에게 뺏길 수 없다는 용감심으로 전국이 일어나서 죽기로 싸우기를 결정했던 것이다. 다행히 미국 전 대통령 트루먼 씨가 한국을 공산군에게 빼앗기는 것이 민주진영에 위태하다는 각오로 해육공군을 발해서 공중과 해상으로 대병이 불시에 도착케 하고, UN의 모든 자유국가들을 지도해서 함께 나와 우리를 도와서 싸우게 된 결과로 적군이 우리를 바다로 침몰시킬 계획을 파괴시키고 3년을 계속하여 싸워나온 것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남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나오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있는 중이다. 미국 군인과 다른 UN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와 고생을 같이하며 피를 흘리며 많은 생명을 희생하고 오늘까지 지켜온 것은 공산군을 물리처서 침략자를 징벌하며 한반도의 남북을 통일시켜서 독립한 통일 대한민국을 확보함으로 세계자유국가들의 집단안전을 보장하기로 목적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적군을 방어하며…(후략)
3. (가) –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결의를 다지던 소련의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4. (가) – 무솔리니 또한 곧 몰락할 것임을 믿는 이탈리아의 국민
5. (나) – 일본이 전쟁에 패해 주권을 잃고 미 군정 치하에 놓여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본 장교
6. (나) – 저우언라이의 평화 5원칙을 감명 깊게 들은 바 있는 인도의 외교관
7. 다음은 중세의 여러 민족에 대한 기록 중 일부이다. 각 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의 개수는?



(가)민족의 대규모 서진은, 필연적으로 (나)민족의 로마제국 영내 침입을 불러왔다. 이 연쇄적인 동북방 이민족들의 서진은 로마제국의 영향권이었던 지역에 반달 왕국, 프랑크 왕국, 부르군트 왕국 등 무수한 (나) 계열 국가들이 성립하도록 이끌었다. 한편 (나)민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은 아타나시우스파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고 서로마 황제로 대관하는 등 그리스, 로마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나)민족과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융합된 중세 서유럽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 한편, 중세 서유럽은 부와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바스 가문의 칼리프로부터 세속군주 술탄의 칭호를 받은 (다)민족과 대립하였다. 원래 이슬람인의 노예 혹은 용병 역할을 하던 이들은 술탄 칭호를 받은 이후 아나톨리아와 팔레스타인 방면으로 지속적인 팽창을 추진했는데, 이를 계기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 중세 유럽 세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으로 서유럽 세계와 대립하던 (다)민족의 국가는 칭기즈 칸을 중심으로 한 (라)민족의 대제국에 멸망하였다.

1. – 한때 남면관제와 북면관제를 시행하였다.
2. – 세르비아와 러시아로 대표되는 범슬라브주의와 대립하였고, 이는 제 1차 세계 대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 – 묵철가한을 중심으로 제국을 형성하여 당나라와 대립하였다.
4. – 한때 천호제를 실시하였다.
5. 다음은 서아시아와 유럽의 고대사에 대한 역사 수업들의 일부이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가) (나), (다), (라)국가와 (마)문명, (바) 민족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알맞은 것의 개수는?



*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가)의 2대 왕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 2세)은 (나)와 티레 등 유프라테스 서쪽의 레반트 지역을 평정한 정복 군주이며, (가)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다) 왕국을 정복하고 그 유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의 유민들이 겪은 일은 훗날 아비뇽 유수의 어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시리아, 모압, 암몬 등을 정복한 느부갓네살은 (나)를 비롯한 레반트 국가들의 반란을 사주했다는 명분으로 (나)를 원정하였습니다.
* 솔로몬왕 사후 (다)와 갈라진 이스라엘의 왕 페카는 당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라)에게 위협을 느끼고 (다)의 왕 아하즈에게 동맹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즈는 (라)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동맹을 거절하고 (라)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고, 이에 이스라엘은 (다)와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라)에 원군을 요청했고, (라)의 왕 필에세르는 이욘, 야노아, 갈릴레아 등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만을 지키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호세아라는 인물이 페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호세아는 겉으로는 (라)에 복종하는 척하면서 (나)의 파라오와 연계하여 (라)에 대항하려고 하였고, 마침내 (라)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함락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유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 (마)문명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일대에 존재하던 해상 청동기 문명입니다. 이들은 오리엔트를 그리스에 전파하는 등 유럽 문명에 영향을 끼쳤으며,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철기를 사용하는 (바)민족에 멸망하였고, 이후 그리스에는 암흑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1. (가)는 수도 니네베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학문을 장려했겠군.
2. (나)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마)는 크노소스 궁전을 각각 건립하였겠군.
3. (다)에는 시기상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신자가 존재할 수 없지만, (라)에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신자가 존재할 수도 있겠군.
4. (바)민족이 세운 그리스 도시국가 중 하나는, 정복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협력한 자들을 페리오이코이로 삼아 주로 고대 인도의 크샤트리아와 유사한 직역을 부여했겠군.